

영암군, 조선업 인력 이주정착금 지역화폐 지급

월 25만원씩 12개월 지급 방식
지난 3월 참여자 38명 신청 접수
생필품 판매업체 등 74% 사용돼
“경제활성화 정책 지속 편성할 것”

전라남도 영암군이 조선업 전입 인력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올해부터 지역화폐 ‘월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면서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조선업 신규 및 재취업자에게 매월 25만원씩 1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이주정착금’ 제도를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인 ‘월출페이’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전라남도과 함께 시행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영암군은 올해 3월 이주정착금 대상자 38명의 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54명에게 1350만원 상당의 월출페이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로 지난달 15일 24명에게 600만원, 2차로 이달 10일 30명에게 750만원을 전달했다. 나머지 8명은 입사 3개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월출페이 운영 대행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9일까지 1차로 지급된 600만원 중 442만원이 마트, 편의점, 식당, 주유소, 병·의원 등 지역 가맹점 100여 곳에서 사용됐다.

이는 지급액의 약 74%가 실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 지역화폐는 외식업체, 생필품 판매

업체, 의료기관 등 영암 가맹점 100곳 이상에서 조선업 종사자들의 생활을 위해 쓰였다.

그중 마트와 편의점의 이용 비율이 높고 식당과 주유소, 병·의원과 약국, 이용 숙박업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지급된 이주정착금도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비율로 쓰일 경우 약 1000만원이 지역상권에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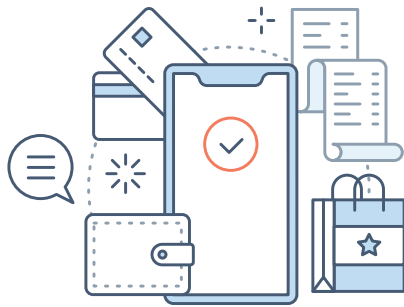
영암군의 이주정착금은 이주정착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영암으로 전입한 조선업 종사자 중 신규 취업자 및 조선업 2년 이상 경력의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영암군 기업지원과에 방문·팩스(061-470-6892)로 제출

하면 된다. 팩스로 접수할 경우, 전화(061-470-6882) 사전 연락은 필수다.

김명선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영암 쌀 소비, 지역화폐 구매 등 대불산단 조선업 기업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부를 지역경제에 먼저 투입하는 지역순환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주정착금 제도를 포함해 기업과 직원,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도로변 불법 무화과 가판대 정비 영암군, ‘무화과 판매존’ 설치

전라남도 영암군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쾌적한 지역 경관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주요 도로변 불법 설치 무화과 가판대 정비활동을 벌인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무화과 주산지인 연간 4000톤 규모의 과육 생산, 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경제에서 무화과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영암을 가로지르는 국도 13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무화과 가판대는 무화과 품질 유지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등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가판대 자진 철거를 유도해 15개소가 참여했다. 하지만 아직도 국유지인 도로변에 남아 있는 불법 가판대와 시설물을 도로법, 국유재산법 등에 근거해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군은 농가들이 안전하게 도로변에서 무화과를 팔 수 있도록 ‘무화과 판매존’도 설치할 예정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월 10만원 지급…30일까지 신청

전라남도 영암군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19~49세의 1인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민이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두 조건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은 1인가구 월 소득 358만 8020원 이하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하고 최종 지원자에게는 지난 1월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암=한교진 기자



지난 15일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이 관내 저소득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LED조명 교체 봉사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관내 저소득 장애인 1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반짝반짝 사랑의 등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사업으로 전등교체가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일상에 어려

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내 이웃의 희망을 타이가 되어 따뜻함을 나누는 무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안=김행연 기자

강진군, 2기 실버청춘 혈관건강 교실 참여자 모집

30일까지 선착순 모집

전라남도 강진군이 제1기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2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은 올해 총 4회기 중 첫 회기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2기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혈압·당뇨 등 혈관 질환 유소견자 또는 관심이 있는 군민으로, 선착순 20여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6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주 동안 운영되며 보건소 전문 인력과 외부 강사진이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병행 진행한다.

이번 2기에서도 생활 건강 실천을 유도하고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사전·사후 BMI, 콜

레스테를 측정 및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 △요가·체조·스트레칭 △영양교육 및 실습 △심방세동 선별검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강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만성질환관리팀(061-430-5272)으로 전화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혈관 건강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번 2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가스 안전 강화 ‘합동 점검’ 실시 완도군, 관내 숙박업소 등 대상

전라남도 완도군이 가스 사고로부터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가스 안전 종합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가스 안전 종합관리계획은 다중 이용 시설 점검과 가스 안전장치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가스 관련 위해 요소 개선과 안전 관리에 대한 군민 의식 확대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이달 말까지 관내 숙박업소 125개소, 민박 276개소, 목욕장 12개소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반은 가스 설비 적정 설치, 가스 누출, 배기 통 이탈, 일산화탄소 누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결함 발견 시 개선 명령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은 LPG 배관망 사업과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 고무호스 사용 가구의 급속 배관 교체, 가스 자동 차단 장치(타이머 콕)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도 현재까지 1만 세대에 설치됐으며 모든 주택, 가스 사용시설 등에 설치되도록 매년 지원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수산공익직불제 2종 지급 완도군, 7월31일까지 신청

전라남도 완도군은 오는 7월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2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2종이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의 어선에 연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전년도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어업인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완도군의 경우 10개 읍면, 48개 도서 지역이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기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이며 어가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 당해년도 농업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어업인은 제외된다.

수산공익직불제 2종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농수산팀)에 신청할 수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